

인터넷 중독 초·중·고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능력

한 유 진(명지대학교 교수) · 최 나 야(가톨릭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들 중 인터넷 중독 집단을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가려내어 이들이 부모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애착과 자기조절능력이 비중독집단과 비교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재구성하였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의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기도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각 11, 8, 10개교에서 표집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생 총 1051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다.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 분석, 빈도와 백분율, 상관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3.2%(34명), 잠재적 위험군은 18.2%(191명)로 고위험군 중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61.8%), 잠재적 위험군 중에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42.9%). 중독 집단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장애와 현실구분 장애를 경험하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긍정적 기대와 낮은 참을성을 보이고, 인터넷을 통한 가상적 대인관계를 지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일탈행동 및 사용하지 못할 때의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능력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비중독 집단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자기조절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두 위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초·중·고생 전 연령에 걸쳐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중재가 요구된다. 특히 잠재적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상당수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애착과 자기조절능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와 관계있는 1차적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애착은 사회성과 학업 성취 등 다양한 변수와 장기적 관련이 있는 변수로,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 사용과 중독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의 신뢰와 정서적 공감 및 의사소통 수준을 높여 안전한 애착을 형성·유지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비합리적인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구분 짓는 변수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